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실태 및 지원요구 - 문화예술영역을 중심으로 -

박 정 민*

김 재 현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홍 서 린

신 예 이

이 하 영

대구대학교 석사과정

박 경 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영역을 중심으로 참여실태 및 지원요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평생교육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 2곳의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중 문화예술 참여실태 및 지원요구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모두 전사되었으며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평생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실태 조사 결과 모든 학생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주 1회 또는 3회, 1회에 1~2시간,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대다수 부모의 권유를 통한 참여였다.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요구 조사 결과, 문화예술 숙련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또한 일반인들과 함께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길 희망하였다. 자신의 주거환경 인근 장소를 선호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주 3회 3시간 이상 배우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제공은 선생님 또는 학부모의 정보제공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영역 프로그램의 실태를 밝히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 제 1저자

** 교신저자 (rosapark01@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대한 학습권이 명문화되어 있고, 「평생교육법」 제4조와 제5조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김호연 외, 2014). 더 나아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하도록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책과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이처럼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된 배경에는 그동안 소외되고 제외되었던 장애인의 성인기 삶의 질에 대한 당사자 및 보호자의 관심도와 요구도가 높아진 점과 사회전반에 자라잡고 있는 자기결정에 대한 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러 법과 제도에서 명시한 다양한 평생교육에의 참여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이 지닌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크게 학교 기반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시민사회운영 평생교육형태(예,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 운영의 주체를 구분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시행 2017.5.30.] [법률 제 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다만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과 수강자 만족도 평가를 통한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질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육교육, 시민참여교육의 6영역으로 대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는 6대 영역에 해당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현재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879기관 3,812개의 프로그램을 주제로 분류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47.4%(국립특수교육원, 2011)였고, 2014년에 실시된 특수교육 실태조사(박해룡, 국립특수교육원, 2014)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518개 중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전체의 51.2%로 가장 많은 참여도를 보였다. 2016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조사에서도 543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제영역으로 분류해 본 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전체의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조창빈, 김두영, 2016). 기존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증가되어왔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여가스포츠프로그램)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과정(문화예술향유프로그램, 문화예술숙련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5).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문화예술향유프로그램,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과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이중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은 음악회, 뮤지컬, 전시회 관람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면서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 숙련프로그램은 공예, 합창교실, 서예교실 등 문화예술 행위와 기술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문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은 보치아, 승마,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레저스포츠를 포함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을 통해 여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화적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위해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이며 심리적·정서적 풍요로움은 대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하여 충족된다(이혜승, 2011).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헌법 제11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이 이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자아실현 및 자기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은 앞선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 기능의 결함으로 형성된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뇌병변장애아동이 미술치료를 통해 변화되는 과정과 삶의 의미를 연구한 박나래(2015)의 연구나, 미술치료 활동 경험을 통해 척수 장애인이 '자기표현'이나 긍정적인 자기 이해를 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최명옥, 최선남(2015)의 연구 등은 문화예술이 장애인의 자아실현 및 자기결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발달장애인은 학교 교육을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고 균형을 찾거나 자아실현 및 자기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필요로 한다.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삶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며, 자아의 확립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 기회의 확장, 주체적인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자리매김 등과 함께 지역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을 기대할 수 있다(김정애, 2010). 또한 발달장애인의 감성발달 및 전반적인 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안정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한 선행연구들(강순원 외, 2011; 김정재 외, 2009; 곽승철 외, 2010; 정인숙 외, 2005 등)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연구 대상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수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극히 적었다. 또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주변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요인을 밝히는 연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 및 종합 정리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발 시 이들의 요구가 반영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지원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영남지역의 고등교육기관 2곳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은 중등까지의 학교교육을 마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학 등 수료자에게 특정한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주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발달장애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당사자주의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 실태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발달장애인들을 발달장애인이라 정의하였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K고등교육기관과 D고등교육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였다. 면담참여 희망자인 발달장애인 가운데 수용 및 표현언어에 어려움이 없는 학생 중 무작위로 구성하여 총 1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소속기관을 통해 발달장애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장애인의 주체적 사고와 독립적 수행능력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당사자주의에 근거한 면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직접 기본정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의 참여자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그룹	구분	성별	연령	장애유형	거주지	현재소속
1	A	여	22	발달장애 2급	특별시, 광역시	고등교육기관
	B	남	21	뇌병변장애 3급	읍면지역	고등교육기관
2	C	남	21	발달장애 3급	읍면지역	고등교육기관
	D	남	21	지체장애 3급	특별시, 광역시	고등교육기관
	E	남	21	지적장애 3급	특별시, 광역시	고등교육기관
3	F	남	22	지체장애 2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G	여	22	지적장애 3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H	남	22	지체장애 2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I	남	23	지체장애 3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계속)

그룹	구분	성별	연령	장애유형	거주지	현재소속
4	J	남	21	지적장애 2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K	여	21	지적장애 2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L	여	21	지적장애 3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M	남	21	지적장애 3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N	남	21	지적장애 2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O	남	21	지적장애 3급	특별시, 광역시	사립 전문대학 복지반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실태와 지원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 된 면담을 위한 질문내용은 선행연구(국립특수교육원 외, 2015; 이미현, 2017; 장미숙, 2014; 정경태 2013)에서 사용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진이 추구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구성 및 선별하여 1차 면담 질문을 추출하였다. 이 질문문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를 수행해 온 장애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특수교육전공 교수 2인에게 ‘질문을 통해 평생교육(문화예술)의 실태와 요구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였다. 이후 이 질문지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발달장애인 2인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질문에 응답하기에 어려움은 없는지, 문항의 순서나 추가할 문항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하였다. 특수교육 전문가의 검토와 연구진의 협의를 통해 문항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면담문항을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과 실태 9문항, 평생교육 요구 문항 6문항, 자유의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을 할 때 사용할 질문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면담 질문 내용

질문 내용
- 평생교육(문화예술) 참여 여부
- 평생교육(문화예술) 참여 경로
- 기존 평생교육(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 방법
-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3. 연구절차

2018년 3월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여 2곳에 협조를 구한 뒤, 각 기관의 주무관이 연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받은 후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여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주무관을 통하여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 두 곳의 고등교육기관을 방문하였다. K고등교육기관에서는 참여자의 날짜와 시간을 고려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면담을 진행하였고, D고등교육기관에서는 총 10명의 참여자를 각각 4명과 6명,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면담은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로 구성하였으며 주진행자는 도입질문, 본 질문, 마무리질문 등 핵심질문을 하였고, 보조진행자는 녹음, 상황에 대한 메모, 보완질문 및 예시 제공 등을 하였다. 면담시간은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반구조화 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가정에 미리 배부하여 보호자의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총 15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작 시 조사 설문지를 배포하여 참여자 스스로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면담 과정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메모 등을 하였다. 녹취한 내용을 통해 연구자 3명이 전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은 총 A4용지 55쪽이었다.

4. 자료 전사 및 분석

면담에 대한 전사는 면담 직후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연구자 3명이 4개의 녹음자료를 각각 1차적으로 모두 전사 하였고, 전사된 내용은 특수교육분야 연구자 5명이 각각 녹음된 면담내용을 들으며 면담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재확인하였다. 내용 검토를 마친 후에는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기관명, 참여자 이름, 면담 시 거론된 지명이나 인명 등은 모두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전사본을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질적 분석을 하였다. 이론적 틀은 근거 이론의 지속적

비교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면담 내용을 연구자들이 각각의 전사본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구체적인 주제를 찾아 개방형 코딩을 한 후에 중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아 분석하는 축 코딩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제와 범주에 대한 연구자간의 일치도를 검증(전체 내용의 20%에 해당되는 10쪽)한 결과 94.3%의 일치도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협의회를 열어 코딩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필요 시 주제 분류의 기준을 수정하며 완성해 나갔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면담 전사내용을 교차 검증하고, 나머지 전사자료를 같은 방법으로 코딩하였으며, 축 코딩 단계에서는 개방형 코딩 단계에서 정리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범주화하였다.

5.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노력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내용을 주제와 범주에 따라 삼각검증(녹음자료, 면담자료, 관련메모)을 사용하여 분석자 간 일치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자는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질문 내용이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첫째, 질문지 구성 시 장애성인을 지도하고 있고 평생교육연구를 수년간 수행해온 특수교육전공 교수 2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둘째, 특수학교에서 근무경력을 가지고 수년 간 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육과 교수 1인과 특수교육 전공 대학원생 5인(특수교육학과 학사, 특수교육학과 석사)가 지속적으로 질문 및 결과 분석에 참여하고 상호 보완하였다. 셋째, 실제 면담에 적합한 질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를 지닌 대학원생에게 예비 면담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모든 면담자료는 전사를 하였으며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자료 이외에 녹음자료와 관련 메모,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삼각검증을 하였고 관련 내용을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며 발달장애성인의 특성과 능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III. 연구 결과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지원 요구에 대한 면담 내용을 요약한 것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주제별 범주나누기 n=명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n)	
참여실태	프로그램 유형	여가스포츠 중에는 농구(1), 요가(1), 배드민턴(1), 볼링(1), 헬스(3)를 배움	
		문화예술 향유 영역에서는 야구관람(2), 영화관람(4), 뮤지컬 관람(1),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1) 등을 즐김	
		문화예술 숙련 영역에서는 바리스타(2), 도예(1), 플룻(1), 표현예술(동작체험예술)(3), 컴퓨터(2), 제과제빵(1), 요리(1) 등을 배움	
	교육형태	주 당 1회(5), 2회(2), 3회(5) 기타(5)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함	
		교육은 1회당 1시간~2시간(5), 2시간~3시간(4)의 형태로 참여함	
	참여 동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참여함	
		엄마의 권유로 참여함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함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기관리를 하기 위함 SNS 이벤트 당첨되어 참여함	
	지원요구	프로그램 유형	여가스포츠 영역에서는 헬스(3), 테니스(1), 배드민턴(3)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함
문화예술 향유 영역에서는 콘서트, 음악회, 뮤지컬 등 공연을 관람(7) 하며 영화관(4), 미술관(1), 스포츠경기(2) 등을 관람하길 원함			
문화예술 숙련 영역에서는 바리스타 교육(3), 꽃꽂이(1), 요리(4), 각종 악기(3), 제과제빵(3), 미술(1) 등을 배우길 원함			
누구 (누구와/누구에게)		함께 배우고 싶은 사람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싶음
			비장애인들과 함께 배우고 싶음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배우고 싶음
		배우고 싶은 선생님	기타 의견으로는 혼자, 일대일, 좋아하는 사람과 또는 동호회가 있음
			예쁘고, 착하고, 친절한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음
			교육 프로그램을 전공한 전문가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음 복지관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음
교육형태		주 당 1회~4회 정도로 다양한 횟수를 원함	
		회당 1~2시간(5), 2~3시간(3), 3시간 이상(7) 정도 참여하고 싶음	
장소		학교, 복지관 및 센터에서 배우고 싶음	
		전문 학원 및 기관에서 배우고 싶음	
		기타 의견으로 체육공원에서 배우고 싶음	
정보획득 경로		선생님, 학부모, 친구, 전무가 등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싶음	
		교내 포스터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얻기를 원함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실태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생교육 고등교육기관인 K고등교육기관과 D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5명의 응답을 통해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여부, 유형, 형태와 동기를 분석하였다.

1)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여부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조사 연구 참여자 15명 모두 고등교육 기관 재학 중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참여한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형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참여 프로그램 유형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형(중복응답) n=명

영역	유형(n)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헬스(3), 농구(1), 배드민턴(1), 볼링(1), 요가(1)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영화 관람(4), 야구 관람(2), 노래방(1), 뮤지컬 관람(1)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	표현예술(3), 바리스타(2), 컴퓨터(2), 도예(1), 연극(1), 요리(1), 제과제빵(1), 플룻(1)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영역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 유형은 ‘헬스’ 였으며 농구, 야가, 배드민턴, 볼링 등이 나타났다.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에서는 ‘영화 관람’ 이 가장 많았고 야구관람, 뮤지컬 관람, 노래방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에서는 ‘표현예술(동작체험예술)’ 이 가장 많았으며 바리스타, 컴퓨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고 도예, 플룻, 제과제빵, 연극, 요리 순으로 나타났다.

3) 참여한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소요시간 및 비용부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참여한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각 유형의 소요시간 및 비용부담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소요시간 및 비용부담 n=명

횟수		시간		비용	
주당 횟수	n	1회당 시간	n	월별 비용	n
1회	5	1시간	·	5만원 미만	4
2회	2	1~2시간	5	5 ~ 15만원	2
3회	5	2~3시간	4	15만원 이상	1
기타	5	3시간 이상	·	알 수 없음	2
총	17	총	9	총	9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에 참여한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교육형태 중 횟수는 주 1회, 주 3회, 기타가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 2회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에는 월 2회, 가끔씩, 매일 오전·오후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프로그램의 교육형태 중 시간에서는 1회당 시간은 1~2시간, 2~3시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월별 비용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5~15만원, 15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4)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동기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 인한 참여, 다른 응답으로는 본인의 의사, SNS 이벤트 당첨이 있었다.

A : 내가 해보고 싶어서요.

A : 심심하고 취미 삼아 할 수 있어서

T : 영화관 가는 거 친구들이랑 놀려고 가는 거죠? 같이 놀다가 친구들끼리 영화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D : 예

F : 부모님한테 정보를 얻어 가지고.

H : 저 자신을 꾸미고 싶어서.

F : 저 혼자. SNS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T : 본인이 좋아서?

G : 네

H : 박기량(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불러고

J : 엄마가 가라 해서

K : 엄마랑 같이... 제가 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K : 아니.. 운동을 해야 돼서... 했어요.

T : 영화. 영화 봤고. 영화는 뭐 재밌는 게 나와서? 보러 가고 싶어서 갔어요?

L : 네.

T : 그랬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갔어요? 엄마가 배워보라고 했든지, 내가 너무 배워보고 싶었든지.

M : 제가요.

T : 그럼 표현예술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O : 네

T : 혹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온 사람 있어요?

L, M : 저요.

T : L학생과 M학생은 하고 싶어서 왔구나. O학생은? 선생님의 권유로? 엄마의 권유로?

O : 아뇨. 선생님의 권유로

J : 선생님의 권유로.

K,N : 선생님의 권유로.

K : 그건 엄마들이 알려줘서요.

N :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배워보라 해서.

L : 엄마들 모임에서.

T : 누가 가라고 했어요?

J : 엄마가.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생교육 고등교육기관인 K고등교육기관과 D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5명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통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 전문가, 장소, 형태(횟수, 시간, 비용), 정보획득 경로를 분석하였다.

1)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형 (다중응답)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형 n=명

영역	유형(n)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배드민턴(3), 헬스(3), 테니스(1)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	공연 관람(7), 영화(4), 스포츠 관람(2), 미술관(1)
문화예술 숙련프로그램	요리(4), 바리스타(3), 악기(3), 제과제빵(3), 그림(1), 꽃꽂이(1)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에서는 공연(콘서트, 음악회, 뮤지컬) 관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미술관 관람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숙련 영역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바리스타와 제과제빵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꽃꽂이,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그림 배우기 등이 나타났다. 여가 스포츠 영역에서는 헬스, 배드민턴에 대한 요구가 동일하게 가장 높았으며 테니스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2)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원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원 n=명

대상	n
장애인	2
비장애인	8
부모 또는 가족	1
기타	5
총	16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길 희망하는 구성원으로 비장애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같은 발달장애인, 부모 또는 가족,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혼자, 일대일, 좋아하는 사람과 또는 동호회에서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다.

3)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지도 희망 교사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도 희망 교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 여자선생님
- A : 어렸으면 좋겠어요.
- A : 전공하는 선생님
- E : 저는 상냥한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
- D : 훈녀같은..
- D : 친절하고 설명을 안내하고
- C : 저도 착하고
- B : 저도 마음씨 착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완전 똑바로 가르쳐주는 선생님
- F : 어... 알아주시는 선생님. 아니면 전문가.
- I : 전문가
- I : 강사.
- H : 좀 인기도 있고, 전문가.
- H : 전문가가.
- H : 네. 마음을 잘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사상으로 프로그램 관련 분야의 전문가(전문 강사)를 원했으며, 그 외의 응답으로는 친절한 선생님, 상냥한 선생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친절한 선생님, 상냥한 선생님’의 의미를 물어보았을 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선생님, 다그치거나 억박지르지 않고 질문에 상냥하게 대답해주는 선생님이라고 답변하였다.

4)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장소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장소로 어디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장소 n=명

장소	n
복지관 및 센터	5
재학 중인 학교	4
전문 학원 및 기관	7
기타	1
총	17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장소는 전문 학원 및 기관이 가장 높았고, 복지관 및 센터, 재학 중인 학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응답한 장소로는 체육공원이 있었다. 전문 학원 및 기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관 및 센터와 학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두 장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소요시간 및 비용부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형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시간 및 비용부담에 대한 요구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소요시간 및 비용부담 n=명

횟수		시간		비용	
주당 횟수	n	1회당 시간	n	월별 비용	n
1회	2	1시간	·	5만원 미만	3
2회	4	1~2시간	5	5 ~ 15만원	5
3회	5	2~3시간	3	15만원 이상	8
기타	3	3시간 이상	7	알수없음	1
총	14	총	15	총	17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소요시간 및 비용부담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주당 횟수는 주 3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주 2회, 기타, 주 1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주 4회 이상 또는 매일 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1회당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1시간 이하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월 비용은 15만원 이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5만원 미만, 알 수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6)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정보 획득 경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획득하게 된 경로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 : 이런 정보가 게시판 이런 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님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A : 많이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T : 벽에 붙여져 있는 것보다는 말로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A : 네

T : 또 아는 사람이 알려 주는 게 더 좋은 거 같구나?

A : 네

T :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런 포스터나 어디 학원에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학교에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얼마나 선생님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SNS나 인터넷에 있으면 찾아서 볼 수 있겠어요? 어디에 있으면 가장 잘 찾아서 내가 배우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I : 학교, 친구

H : 친구

F : 학교 또는 선생님, 부모님

G : 저도 학교나 부모님

K : 엄마가요.

L : 선생님

N : 엄마, 선생님

O : 저도 둘 다요.

J : 전 전문가요.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획득하게 된 경로에 대해 물었을 때 게시글을 통한 정보 획득에 대한 응답은 없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구두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로 정보를 전달해줬으면 하는 사람으로는 학교 친구, 선생님, 부모님, 전문가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부모님, 선생님을 통한 정보 획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정보획득 경로가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지원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고등교육기관과 D고등교육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참여자 중 무작위로 총 15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화,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지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충분하고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시급하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모두가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대다수가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 1~2회 정도 부모나 교사의 권유를 통해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참여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숙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과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기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인 조창빈, 김두영(2016)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 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발달장애인이 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이창호, 2013). 그러나 국내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제공 기관의 수와 제공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제한적이고 편협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거주 지역, 문화 인프라, 정보의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발달장애인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이유는 수요자의 요구보다 시설의 편이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다른 시설에서 이미 성공한 프로그램의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교육내용이 단편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4).

둘째, 발달장애인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김두영, 박원희, 2013).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2011년부터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프로그램 및 기관,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생교육 정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정보제공의 부족함을 하소연하고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정보망에 대한 홍보 부족과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이 쉬운 글을 읽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록 피치마켓에서 만든 “쉬운책” 과 같이 발달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콘텐츠를 탑재한 발달장애인 전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알림 시스템을 만들고 홍보를 한다면 더욱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연구 전 기대했던 결과와 달리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참여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가 정규교육과정이라는 틀에 안에 있는 청소년이 아닌 자립을 요구하는 성인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나왔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교사의 권유’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성인기가 되었음에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학부모나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발달장애인이 학교 교육 이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김정애, 2010). 그러므로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하고 이 프로그램을 발달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2. 발달장애인이 인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지원 요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강사의 자질.

첫째,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요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이 문화예술 숙련프로그램은 자신의 거주 인근의 기관에서 배우기를 희망하였으며 콘서트 관람, 야구 관람 등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았다. 콘서트와 같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본인의 요구에 따라 향유하길 희망하였으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동거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 대상자들의 지역적 특성상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다수의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발달장애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적 균형을 맞춘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인프라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강사의 전문성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을 통해 전문가 인력 양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배우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길 희망하였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발달장애인들 또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움으로써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교강사의 양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인력양성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전문성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강사 양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강사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프로그램 내용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지원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를 통해 얻어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을 다양화 하고 장애인 수용가능성을 향상시켜야한다. 둘째, 별도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일반 평생교육 시설을 발달장애인들이 일반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내의 전문가의 장애인에 대한 지도력 향상과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넷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강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대학에 진학할 정도의 학업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경도장애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당사자들의 요구를 분석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영남권)에 한한 자료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선, 신진숙 (2015).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에 관한 기초 연구. **발달장애 연구**, 19(1), 1-22.
- 김순원, 김운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 (2011). 서울형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서울:서울특별시교육청
- 국립특수교육원 (2011). 2011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편.
- 국립특수교육원 (2015). 발달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시민참여교육편. 101-102.
- 곽승철, 이유리, 임경원 (2010).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정서행동장애 연구**, 26(4)
- 김경열 (2011).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현황 및 운영프로그램 분석. **발달장애연구**, 15(4), 1-20.
- 김기룡, 나경은 (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4), 315-335.
- 김두영 (2015).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부모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121-147.
- 김두영 (2015).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1), 21-41.
- 김두영, 고등영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23(2), 241-258.
- 김두영, 김호연, 박원희 (2014).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48(4).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4(4).
- 김두영, 박원희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 김영준, 도명애 (2017).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개발. **통합교육과정연구**, 11(4), 61-100.
- 김정애 (2010).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재, 이상로, 송민경, 구미영, 도지영, 서은경, 최복천, 김기룡 (2009).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김호연, 김두영, 홍재영, 김해동 (2014). **시각중복장애학생 고등 평생교육 기반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김홍주 (2016). 평생교육차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 장애인 영화제 (PDFF)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충래, 고인숙 (2004).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청소년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119-155.
- 류재연 (2017).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평생교육참여 저해 요인 분석. **통합교육연구**, 12(1), 145-162.

- 명소연, 김두영 (2017.7).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3), 1-23.
- 박나래 (2015). 뇌병변장애아동의 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진, 강명희, 김두영 (2015). 발달장애자녀를 위한 부모의 평생계획 현황 및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0(1), 211-233.
- 박해룡, 국립특수교육원 (2014).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 성명진 (2015).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기결정 프로그램 고찰.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1(2), 47-70.
- 손성화, 강영심, 이연재 (2016). 성인발달장애 자녀의 평생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기대, 55(3), 225-249.
- 윤지현, 김호연, 김두영 (2016). 발달장애 자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 인식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1(1), 129-151.
- 이미현 (2017).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현황 및 욕구조사. 원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혜, 허인열 (2016). 발달장애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공예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515-524.
- 이창호 (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평택, 한국복지대학교.
- 이혜승 (2011). 창의적 학습양식 및 창의성 계발의 효능감에 대한 영재학생들의 인식조사 : 초등학교 영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 (2014).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욕구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태 (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실태 및 지원요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연수 (2017). 대학 기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천 사례 연구: D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9(1), 185-207.
- 정인숙,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희섭 (2009).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연구보고서, (9).
- 정진옥, 정무성 (2013). 지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349-369.
- 조창빈, 김두영 (2016.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1-24.
- 최명옥, 최선남 (2015). 척수장애 남성의 미술치료 활동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미술치료연구**, 22(4), 1111-1131.
- 홍예리, 김세훈 (2016).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7(2), 143-164.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ocusing on Culture and Art Field-

Park, Jung-Min

Kim, Jae-Hyun

Hong, Seo-Lin

Sin, Ye-I

Lee, Ha-Yeong

Park, Kyoung-Ock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focused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domain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ought to find out about their participation and support needs. It interviewed 15 people who were handicapped by development of two organizations on the status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rts and support during the lifetime of education. All interviews were transferred and analyzed through continuous comparison. According to the survey, al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As for the program type, there were many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s. The program participation period was one to two hours per week, or three times a week, and the motivation for program participation was through the recommendation of most parents.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deman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currently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hey preferred cultural and artistic proficiency programs the most, wanted to join the public, wanted to learn from experts in different fields, preferred a place near his residential environment, wanted to learn 3 hours or more three times a week, was hoped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because of information provided by teachers or par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discussed ways to identify and activate the life education programs of the disabled.

Key Words : A disabled person, Lifelong education, A cultural and artistic program

논문 접수: 2018. 08. 10 심사 시작: 2018. 08. 13 게재 확정: 2018. 09. 19